



열여덟번째 이야기

"그게 뭔데?"

그 날도 보통의 일요일과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전화가 왔고 난 단지 전화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친한 집사가 BEE에 나를 등록시켰으니 계좌로 회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고 내 첫 번째 반응은 “그게 뭔데?” 그 다음 반응은 “등록시킨 사람이 회비도 내.” 였지만 나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그 때 그 집사가 나를 BEE에 등록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비아 학생이었을 때도 인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FTS 하라고 하니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고 순종했고, 인도하라고 하니 별 생각 없이 순종했고, 그렇게 단지 “네”라고 대답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다 보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BEE에 등록시킨 분은 요사이 나에게 말합니다. 진도가 너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근데 이런 삶은 나의 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이었고 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2주, 바로 A국으로 이동해서 1주 세미나 인도를 했을 때, 비행기 추락 빼고 비행기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주신 어려움이라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계속 사역 다닐 거지?” (최고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악한 쪽에서 온 거면 이렇게 묻겠죠. “이 고생하면서 계속 다닐 거야? 왜?” (이 쪽도 음성은 부드럽게 할 듯 합니다.) 제 답은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 갑니다.” (단, 지난 번 탔던 비행기는 절대 타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찮은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사역 자체가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요.

아직도 연약한 부분, 깎여야 할 부분이 많고 성장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주님이 가리키시는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조금씩 전진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해 집니다.)



소식지와 인연도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와 있었고 전화로 소식지 사역 함께 하자고 하는데 답을 하지 못하고 길게 통화할 수 없다고 하니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하여 만났는데 식사 기도를 하며 “한집사를 소식지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길래 식사하며 계속 궁리하기를 식사 값을 내가 내고 안 한다고 해야지 했는데 돈 내는 타이밍을 놓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언 7년입니다.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 함께 사역하는 두 분께 한 분이 편집장 맡으시고 나는 은퇴하고 싶다고 했더니 의리에 죽고 사는 두 분이 사역을 해도 함께, 은퇴를 해도 함께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계속 사역하는 중에, 기자를 하셨던 분이 BEE 사역을 돕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앓싸! 했습니다. 그 분께 소식지 사역을 맡기면 되겠다고요. 그리하여 “비 오는 수요일”이 탄생되었고 일단은 인터뷰 중심으로 가기로 하고 열일곱 번째 이야기까지 내보냈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하나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더운 여름을 맞아 “비 오는 수요일”도 잠시 휴가를 갑니다. 9월에 더욱 참신하고 시원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글로 섬겨 주신 최승호 집사님, 사진과 글로 섬겨주신 조정문 집사님,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오리라 생각되는, 편집과 디자인의 최고봉 최지영 자매님,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BEE 가족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쓰다 보니 시상식 수상 소감 같아 졌네요.)

제가 감히 듣고 싶은 말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겠죠) 그렇다고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해 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he is an ordinary woman who lives an extraordinary life for God!”

(글: 한숙영, 편집: 최지영)

한숙영 권사님은...

34년전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1남 1녀가 있다. BEE에서는 국내사역 본부장으로.2000선교에서는 싱글선교사 케어 탐장으로. 공동체에서는 다락방장으로 섬기고 있다. 정부에서 인정한 약을 취급하는 면허(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그 쪽 약을 다룬적은 한번도 없고 다른 약(구약, 신약)을 소개하고 있다

BEE 소식

비 홈페이지에 2016 하반기 정규 과정 시간표 있습니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비로 양육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홍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